

# 민실위 보고서

2012년 7월 31일(화)

## 조작! 부실! 논란! 올림픽 보도 총체적 난국

김재철은 런던 올림픽 취재팀을 파업 비참가자와 파업 대체 인력을 중심으로 꾸렸다. 결과는 참담하다. 공영방송사라는 MBC가 조작 방송을 내보내다가 하면, 부실한 보도로 논란과 시청자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 1. 김재철 '치적' 홍보 위해 뉴스 팩트 조작

김재철은 지난 해 8월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하는 등 구글과의 제휴에 공을 들였고, 결국 10월에는 콘텐츠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이를 김재철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회사는 지난 27일(금) 'MBC와 구글의 런던-서울 SNS 생방송'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MBC특보> 1면에 톱기사로 크게 실었다. 보도 자료도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따르면 김재철은 "MBC-구글플러스 준은 SNS를 방송에 접목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런던올림픽의 감동과 TV의 소셜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스데스크>는 무려 3분을 들여 이 소식을 다뤘다. 보통의 뉴스리포트가 1분 30초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낮 뜨거울 정도의 회사 홍보, 즉 김재철의 치적 홍보를 감행한 것이다. 이 리포트는 아무런 의미와 정보, 메시지, 감흥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의도적으로 팩트를 왜곡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뉴스데스크>는 '구글의 SNS망을 이용해 영국 런던과 서울의 주요 지점을 연결, 실시간 응원 모습을 쌍방향으로 중계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런던의 주요 SNS망의 연결 지점을 소개하면서, 어느 사무실에 모여 있는 직원들의 모습도 화면에 내보냈다. 이를 두고 앵커는 "이곳은 또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인데요. 다들 모여 계시네요."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화면에 비춰졌던 사무실은, 사실은 MBC 여의도 사옥 6층의 '뉴미디어뉴스국' 사무실이었다. 앵커는 이곳이 마치 MBC와 전혀 상관없는 곳인 것처럼 언급했고, 이는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었다.



당초 보도본부의 뉴미디어뉴스국은 홍대와 코엑스, 서울광장에서 중계를 시도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뉴미디어뉴스국의 운영무 국장은 MBC 사무실로 SNS망을 연결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뉴미디어뉴스국 직원들이 '올림픽을 응원하는 일반 시민으로 둔갑'해 뉴스에 출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던 운영무 국장은 "런던에 있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부장은 "(운영무) 국장이 (문제의) 기사를 다 봤다."고 말했다. 또 누가 문제의 기사를 작성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가 협의해 기사를 썼다."는 이상한 대답을 반복했다.

운영무 국장이 파업 기간 동안 시용기자의 채용을 책임지는 등 김재철 체제 보위에 앞장섰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결국 '김재철의 치적에 조그마한 흠집도 낼 수 없다'는 현 보도본부 간부들의 강박관념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 MBC 특보

### MBC-구글, 런던-서울간 SNS 생방송

- 2012 런던 올림픽의 또다른 이름, '소셜림픽'의 정수
- 국내 최초로 지상파와 구글플러스 생방송 연결
- 런던과 서울 시내 6곳에 설치된 'MBC-Google+존'과 동시 화상 통화

문화방송(MBC, 대표 김재철)은 구글 코리아대표 영동준, [www.google.co.kr](http://www.google.co.kr)와 공동으로 2012 런던올림픽 기간 중 구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글플러스의 '행아웃 온에어'를 통해 실시간 화상통화 생방송 기능을 통해 런던의 긴장된 현장 열기와 서울의 뜨거운 응원열기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MBC-구글플러스 생방송을 27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2012 런던 올림픽은 소셜미디어와 올림픽의 합성어인 '소셜림픽'이라고도 불리는데 MBC와 구글코리아는 구글의 소셜미디어인 구글플러스를 적극 활용, 런던과 서울의 순간을 생방송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번 MBC-구글플러스 생방송은 런던과 서울의 주요 올림픽 현장과 변화기에 위치한 6개의 'MBC-Google+존(Zone)'에서 진행된다.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MBC-Google+존과 MBC 뉴스룸 생방송과 실시간 연결 예정이며 구글플러스와 유튜브 채널(영리)을 통해서도 한국을 포함, 전세계에 생방송된다.

이번 생방송 연결에 사용되는 구글플러스의 '행아웃 온에어(Hangout On Air)'기능은 총 30명이 동시에 접속해 화상채팅이 가능하며, 이 화상 채팅을 실시간 생방송해주는 기능이다. 물론 이 생방송된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구글플러스와 행아웃 기능 설명은 아래 박스기사 참조)

MBC-구글플러스 존에는 뉴스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도 유

트브, 구글플러스를 통해 런던과 서울의 실제 모습이 전파되고, 시민이 나 산수가 행아웃에 참여할 경우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MBC-Google+존은 런던에서는 올림픽 메인스튜디오 앞, 프라자 가 광장, 뉴클론 인근 한국레스토랑 등에 설치되고 서울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코엑스광장, 롯데, 신도림 D큐브 등 3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글플러스의 행아웃 기능은 전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난 4월 행아웃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북미, 남미의 자세대 젊은이들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구글플러스 행아웃을 통해 시애틀로부터 국정연설에 대한 질문을 받아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그날 화상 채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씨스타가 지난 5월 구글 본사가 위치한 마운틴뷰에서 열린 'MBC코리아 뮤직웨이브'에 참석해 행아웃 온에어를 통해 전세계 팬들이 볼 수 있는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했다.

MBC 김재철 사장은 "이번 'MBC-구글플러스 존'은 SNS를 방송에 접목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런던올림픽의 감동과 TV의 소셜화 등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영동준 대표는 "국내 최고의 방송사 중 하나인 MBC와 함께 런던 하계올림픽 기간 중 'MBC-구글플러스 생방송'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긴장된 경기 현장 런던과 뜨거운 응원 열기를 서울과 동시 연결하여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2. 올림픽 보도 올인! 그러나 부실! 논란!

런던올림픽 개막과 함께 우리 뉴스는 올림픽 뉴스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올림픽 개막 이후 지난 사흘 동안 우리 뉴스는 올림픽 뉴스로 59쪽지를 보도한 반면 일반 뉴스는 18쪽지에 그쳤다. '올림픽 35 / 일반 38'로 일반 뉴스 비율이 되려 더 높았던 KBS는 말할 것도 없고(스포츠뉴스 시그널 이후의 아이템은 제외), '올림픽 42 / 일반 18'의 비율을 보인 SBS보다도 올림픽 뉴스를 훨씬 더 많이 배치했다. 그야말로 '올인'을 한 것이다.

올림픽 뉴스의 홍수 속에 일반 뉴스들은 그야말로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우선 어제(30일)의 경우 영광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전원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KBS와 SBS가 모두 리포트로 다룬 것과 대비된다. 전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일본의 원전 사고로 시청자들이 원전 사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단신 처리했다. 또 논란 끝에 가석방으로 어제 풀려난 은진수 전 감사위원 관련 뉴스는 물론이고, 'SJM 용역 직원 투입'이나 '만도 직장 폐쇄'와 같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뉴스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는 어제 KBS <뉴스9>가 [이슈 앤 뉴스] 코너에서 미국 대선 동향을 심층 보도한 것을 비롯해, '체감 경기 쾅쾅..금융 위기 수준 추락', '북한강 유독성 녹조로 야생오리 폐사', 'KTX 사고 후속 보도' 등 일반 뉴스를 자신감 있게 편집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림픽 뉴스에 올인했던 우리 뉴스가 정작 중요한 소식은 빠뜨리는 무능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9일(일) 밤에 벌어진 유도 66kg급 조준호 선수에 대한 판정 번복 기사가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KBS는 뉴스가 끝난 직후 문제의 경기를 녹화방송으로 즉각 틀었고, 9시 30분에 뉴스를 시작한 SBS도 역시 리포트로 이 내용을 소화했다. 결국 MBC에 채널을 고정했던 시청자들만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권재홍 보도본부장과 황용구 보도국장을 비롯한 보도국 책임자들이 앵커의 튀는 복장에 대해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쓸데없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런던 현지 진행을 맡고 있는 양승은 아나운서는 지난 28일(토) 검은색 원피스에 머리에 망이 달린 베레모를 써 '장례식 의상'이라는 시청자들의 비아냥을 받았다. 그런데도 양 아나운서 다음날 초록색 원피스에 같은 색 베레모를 쓰고 나왔고, 어제(30일)도 모자를 쓰고 나왔다. 특히 어제는 모자 모양이 너무 특이해 '만두 찜통을 머리에 얹고 나왔느냐?'는 등의 시청자 반응이 SNS를 타고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양 아나운서의 의상 논란은 출연자 의상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시청자들이 뉴스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처럼 올림픽 기간을 맞아 <뉴스데스크>가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보도국의 제대로 된 교통정리는 도무지 눈에 띄지 않는다. 올림픽 소식을 내실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도, 사회의 다른 이슈들을 고루 전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은 포기한 것인가?